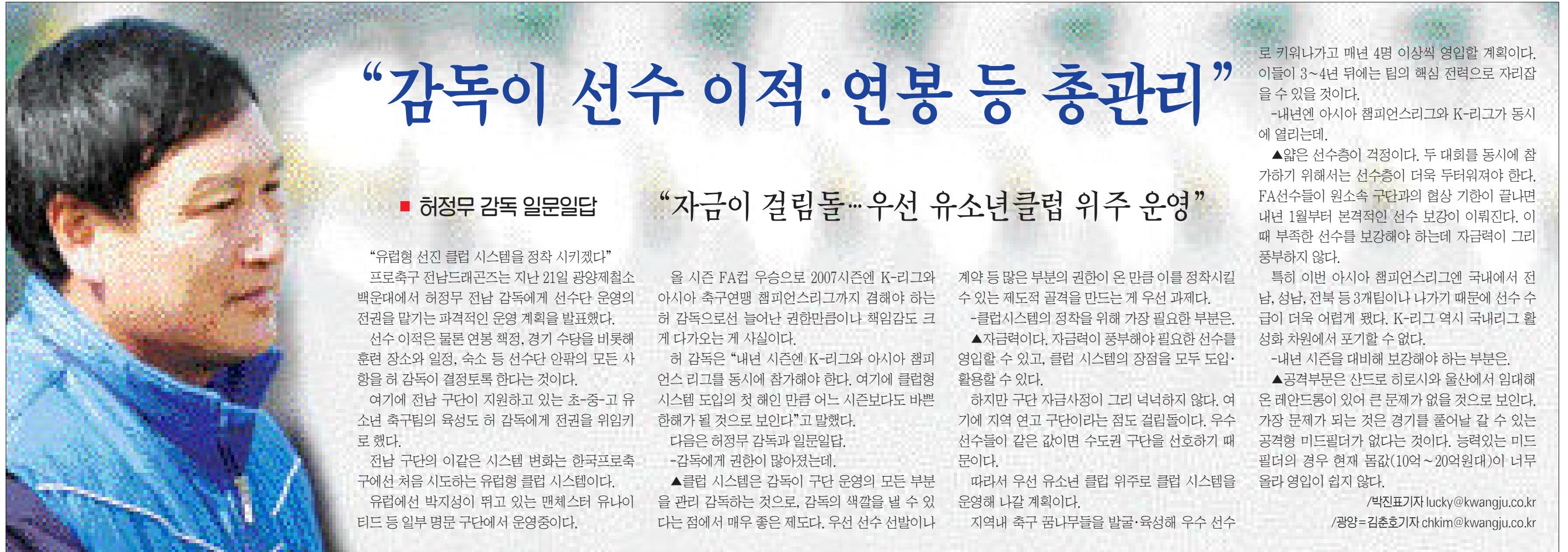


전남 드래곤즈 대변신... '유럽형 클럽 시스템' 도입



“감독이 선수 이적·연봉 등 총관리”

■ 허정무 감독 일문일답

“유럽형 선진 클럽 시스템을 정착 시키겠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1일 광양제철소 백운대에서 허정무 전남 감독에게 선수단 운영의 전권을 맡기는 파격적인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선수 이적은 물론 연봉 책정, 경기 수당을 비롯해 훈련 장소와 일정, 숙소 등 선수단 안팎의 모든 사항을 허 감독이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남 구단이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유소년 축구팀의 육성도 허 감독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전남 구단의 이같은 시스템 변화는 한국프로축구에선 처음 시도하는 유럽형 클럽 시스템이다.

유럽에선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일부 명문 구단에서 운영중이다.

“자금이 걸림돌...우선 유소년 클럽 위주 운영”

올 시즌 FA컵 우승으로 2007시즌엔 K-리그와 아시아 축구연맹 월피언스리그까지 겸해야 하는 허 감독으로선 늘어난 권한만큼이나 책임감도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허 감독은 “내년 시즌엔 K-리그와 아시아 월피언스 리그를 동시에 참가해야 한다. 여기에 클럽행 시스템 도입의 첫 해인 만큼 어느 시즌보다도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허정무 감독과 일문일답.

▶클럽 시스템은 감독이 구단 운영의 모든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감독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다. 우선 선수 선발이나 계약 등 많은 부분의 권한이 온 만큼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골격을 만드는 게 우선 과제다.

-클럽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풍부해야 필요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클럽 시스템의 장점을 모두 도입·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구단 자금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여기에 지역 연고 구단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우수 선수들이 같은 값이면 수도권 구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유소년 클럽 위주로 클럽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내 축구 꿈나무들을 발굴·육성해 우수 선수

로 키워나가고 매년 4명 이상씩 영입할 계획이다. 이들이 3~4년 뒤에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엔 아시아 월피언스리그와 K-리그가 동시에 열리는데,

▲얇은 선수층이 걱정이다. 두 대회를 동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선수층이 더욱 두텁워져야 한다. FA선수들이 원소속 구단과의 협상 기한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선수 보강이 이뤄진다. 이 때 부족한 선수를 보강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그리 풍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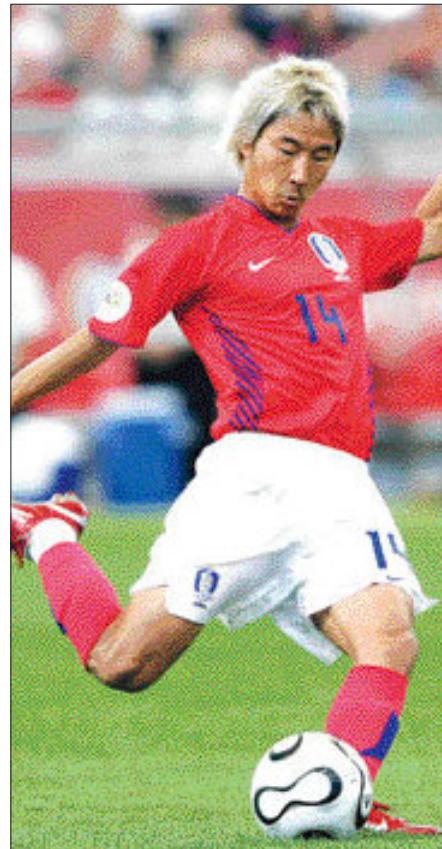
특히 이번 아시아 월피언스리그엔 국내에서 전남, 성남, 전북 등 3개팀이나 나가기 때문에 선수 수급이 더욱 어렵게 됐다. K-리그 역시 국내리그 활성화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다.

-내년 시즌을 대비해 보강해야 하는 부분은 ▶공격부문은 산드로 히로시와 울산에서 임대해온 레안드루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를 풀어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것이다. 능력있는 미드필더의 경우 현재 물값(10억~20억원대)이 너무 높아 영입이 쉽지 않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김준호기자 chkim@kwangju.co.kr

“이천수 J리그행 추진”

■ ‘스포츠나이트’ 보도



해외 진출을 추진중인 이천수(25·울산 현대·사진)가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영입 대상에 올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나이트는 25일 ‘다음 시즌 재도약을 노리고 있는 요코하마가 팀 우선 과제인 공격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가대표 이천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 놓았다’며 ‘이미 구단 관계자가 이천수의 대리인과 접촉 중이며 추정 연봉 1억엔(약 7억 8천만원) 선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요코하마 구단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기간 일본을 방문한 이천수의 대리인과 접촉했다.

또 이 신문은 이천수 측근이 말을 인용, ‘이천수는 일본에서 활약한 뒤 유럽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2003, 2004년 J-리그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강호 요코하마는 올 시즌을 13승6무15패의 성적을 거두며 9위로 마감했고, 특히 득점력 부족을 드러내 공격형 미드필더와 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천수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EPL 3인방 오늘 또 동시 출격

발목 부상 이후 100여일의 재활 끝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25)이 이를 만에 재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박지성은 26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리는 위건 어슬레틱과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0차전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10일 토큰患病전에서 왼쪽 발목 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수술과 재활 훈련을 받았던 박지성은 24일 아스톤빌리와 원정경기에 선발 출격해 65분간 특유의 스피드와 치지치 않는 체력을 선보이며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였지만 큰 활약 없이 경기 갑각만 조율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에도 선발 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박지성의 공백기간동안 강행군을 해 온 웨인 루니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빅스 등 공격수 및 미드필더들을 번갈아 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루니가 벤치에 앉았다가 후반 20분 박지성 대신 교체투입됐다.

특히 박지성은 위건을 상대로 좋은 주역이 있어 공격 포인트 사냥도 기대해 볼만 하다.

박지성이 올 2월 한국인 최초로 잉글랜드 칼링컵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결승전 상대가 바로 위건이었다.

설기현(27·레딩)과 이영표(29·토트넘)는 박지성보다 2시간 앞선 오후 10시에 나란히 출격을 앞두고 있다.

피로 누적 및 잔 부상으로 시즌 초반 맹활약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던 설기현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웨스트햄과 원정경기를 준비 중이다.

레딩은 ‘스타군단’ 웨스트햄에게 객관적 전력에서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1무3패의 부진에 빠져 있는 레딩으로서는 설기현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를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발보다 손이 앞선 ‘영원한 리베로’ 흥명보

지훈의 드리블을 막으려 하고 있다.

25일 오후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흥명보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6 PUMA 자선축구경기’에서 시랑팀의 흥명보(오른쪽)가 손으로

KIA 용병 에터톤 연봉 25만 달러



KIA타이거즈는 24일 2007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활약할 세스 마이كل 에터톤(Seth Michael Etherton·31·우루우타·사진)과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25만 달러에 입단계약을 맺었다.

185cm, 90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에터톤은 2006시즌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에서 2경기에 출장, 7.2이닝을 던져 1승 1패를 기록했다.

미국 남자주대를 졸업한 에터톤은 1998년 애너하임 에인절스의 1리운드(18번째) 지명으로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2000년 애너하임에서 빅리그에 첫 선을 보인 그는 5승 1패 방어율 5.52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후 2003년 신시내티에서 2승 4패(방어율 6.90), 2005년 오클랜드에서 1승 1패(방어율 6.62)를 기록하는 등 메이저리그 통산 23경기에 출장, 9승 7패 방어율 6.30의 성적을 올렸다.

에터톤은 직구 최고구속이 140km대 중반 정도로 다소 떨어지지만, 안정된 컨트롤을 바탕으로 한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 구사능력이 일품이다.

부인과 아들 1명을 두고 있는 에터톤은 내년 1월 하순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FL 하인스 워드 1천 야드 전진 눈앞

미국프로풋볼(NFL) 학교계 스타 하인스 워드(30·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특급 리시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잔대인 시즌 1천 야드 전진을 눈 앞에 뒀다.

소속팀에서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 중인 워드는 25일(한국시간) 피츠버그 하인스 필드에서 벌어진 볼티모어 레이브ൺ과 정규 시즌 15차전에서 79야드를 전진, 올해 출전한 13경기에서 총 924야드를 기록하며 2004년 이후 1천야드 복귀를 바라보게 됐다.

피츠버그는 1월1일 신시내티 벙갈스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워드는 왼쪽 무릎 관절 수술로 2경기를 결장했으나 지난주 캐롤리나우 팬더스전에 돌아와 59야드를 전진한 데 이어 이날 79야드를 보태 1천 야드 달성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